

수산해양관광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탐색 특성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대한 연구[†]

이 동 호*

A Study on Information Exploration Characteristic and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Island Tourism Web Site

Dong-Ho Lee*

<목 차>

I. 서 론	1. 연구절차와 연구방법론
II. 섬 여행 관련 연구의 고찰	2. 연구내용 및 분석
1. 선행 연구 검토	IV. 결 론
2. 연구내용과 설문항목의 개발	참고문헌
III. 실증 분석 및 결과	Abstract

I. 서 론

정보화시대라는 패러다임에서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정보탐색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는 특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결과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사용자가 특정의 문제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Brucks, 1985; 한웅희 등, 2009).

접수 : 2010년 8월 2일 최종심사 : 2010년 9월 20일 게재확정 : 2010년 9월 24일

† 이 연구는 2008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RPP-2008-017)

*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055-640-3141, dhlee@gnu.ac.kr)

그러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형태는 다양하고 또한 주로 이용하는 정보의 원천의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의사결정자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의사결정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성영신 등, 2001). 따라서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있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색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들의 정보 선호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최화춘, 2007)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섬 관광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나 인터넷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섬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주요한 결정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섬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지와 같은 정보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연구조사의 표본인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구매력이나 동반자의 특성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획일적인 프로그램식의 여행을 선호하기보다는 스스로 장소와 일정, 비용 등을 결정하는 여행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대중들과는 정보 탐색과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섬 여행이라는 주제의 선정은 수산경영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수산경영 관련 웹사이트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 수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 도메인의 결정은 표본을 선정하고 연구방법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구(pre-test)의 형식으로 약 20여명의 대학생들을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웹사이트로는 정부기관(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등), 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단위협동조합 등), 전문관광 기관(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광 웹사이트, 일반 관광기업 등) 등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고 높은 빈도로 추천된 것이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이트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관광을 제외한 다른 사이트들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실제 사용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연구영역으로 포함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해양관광 특히 내륙지역 관광과 차별화되는 섬 관광과 관련된 웹페이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관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광상품 패키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단순한 전자상거래적인 측면이 아니라 섬을 여행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여행 초기에 정보를 탐색

하는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학생들의 섬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문헌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섬 여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문헌연구와 사전조사를 통해서 개발된 설문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섬 지역의 여행에 있어서 대학생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유형, 콘텐츠의 형태, 선호하는 정보 원천 등 정보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섬 여행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특성을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 전체 대중이 아닌 대학생이라는 특정의 집단을 대상으로 섬 관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분석과 함께 정보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섬 관광 산업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분시장 접근을 위한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특정의 사이트가 아닌 섬 관광 전반에 걸친 대학생들의 특성과 여행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일반 여행과 관련된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기관에서도 대학생들의 섬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웹 사이트의 콘텐츠의 구성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섬 여행 관련 연구의 고찰

1. 선행 연구 검토

섬 지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관광 혹은 여행 분야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섬 관광에 대한 연구, 개별 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연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진상 2009). 한편 관광객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를 포함하더라도 기존의 연구들은 관광과 관련된 정책적 측면과 단편적인 관광객의 특성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를 섬 여행으로 한정한 경우를 보면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섬 여행 관련 변수들에 초점을 둔 연구(김종택, 김혜정 2004; 이재후 2007; 최화춘 2007; 김준 2008; 이동신, 김정숙 2008; 조진상 2009)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구체적으로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특성이나 형태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섬 여행 혹은 관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이 동 호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섬 여행에 있어서 여행자들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언급되는 변수는 자연경관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이다(이덕순·박경희 2003). 또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 기반시설 등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고 있다(이재후 2007; 김준 2008; 이동신·김정숙 2008; 조진상 2009).

그러나 섬 지역 관광 혹은 여행에서 이러한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 관광객 혹은 여행자들이 그러한 정보나 지식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관광객 혹은 여행자들이 관광루트, 관광대상, 서비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관광 혹은 여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최화춘 2007),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형태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지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기존의 지식에 안주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새로운 정보를 평가할 때 방어적이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가 되면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Biek et al. 1996; 한웅희 등 2009). 즉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의 질이나 양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섬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섬 여행 초기에 사용자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는

<표 1> 여행·관광 결정의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	자연환경	관련활동	편의시설	먹거리	접근성	비용	사회문화
야은숙(2001)		○	○		○	○	
김나희·이애주(2002)	○	○	○	○	○		
오성동·박노경(2003)	○	○	○	○	○		○
우찬복(2003)		○	○				
이덕순·박경희(2003)	○		○	○	○	○	○
정성애(2005)	○	○	○		○	○	○
오상훈·고계성(2006)	○	○	○	○	○		○
박경호(2006)	○	○	○	○	○		
양승필(2006)		○	○	○	○	○	
최화춘(2007)		○	○		○		
최혜경·최지연(2007)		○		○	○		○
김민철·장희정(2008)	○	○	○	○	○		○
김준(2008)	○						○
이동신·김정숙(2008)	○						○
조진상(2009)	○		○	○			○

향후 섬 여행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준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정보탐색을 하는 섬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섬 여행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섬 여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한 편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어떠한 원천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지 어떠한 형태의 정보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정보 원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별로 다소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김재석·한범수(2006)의 연구에서는 관광수요자의 정보탐색 원천으로 검색엔진과 같은 포털 사이트가 68.5%, 다른 사람의 추천이 15.8%, 광고(TV, 신문, 잡지 등)가 12.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재후(2007)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원천으로 TV/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친구/친지, 현수막으로 범주화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비율의 14.9%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가 1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조진상(2009)의 연구에서는 친구와 친지의 소개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다양한 연구들에서 연구표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편화할 수 있는 분석이나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관광대상자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은 낮지만 특정 집단의 특성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차원의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섬 여행 혹은 도서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결정요인들을 검토하였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정보적 접근법에서는 콘텐츠나 정보라는 변수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콘텐츠와 정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콘텐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관광학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논문들에서는 경영정보적인 접근법과 사용자의 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통정보, 숙박정보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보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관광정보의 정확성, 관광정보의 신뢰성과 같이 정보 혹은 콘텐츠의 질(quality)을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섬 여행과 관련한 정보탐색에 있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섬 관련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정보 원천, 정보 형태, 그리고 선호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술통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별로 집단 간의 차이와 변수별 차이에 대해서 통계적 실증 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일반적인 관광 상품을 소비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정, 지역, 비용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섬 여행과 관련된 특성이 다른 집단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가 된다. 그 근거로 최영기(200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표본의 58.3%의 대학생들이 여행상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실제 여행관련 상품을 인터넷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연구에서는 승차권과 항공권을 분리하여 각각 19.0%와 12.7%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권과 항공권을 합산하면 3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패키지여행 상품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획일적인 패키지형 관광상품보다는 스스로 여행 혹은 관광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자율적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에 맞도록 연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결정하는 특성에 어떠한 정보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선호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관광이나 여행의 경우에는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워크를 정보원천으로 하고 주로 자연경관에 의해서 섬 여행이 결정되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섬 여행이나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덕순·박경희, 2003; 한국관광공사, 2006; 이재후, 2007; 김준, 2008, 이동신·김정숙, 2008; 조진상, 2009). 그러나 과연 이러한 특성이 대학생이라는 집단에서도 동일할 것인가는 확실하지가 않다.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이 실제 표본 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준의 선행연구 결과에 나타난 특성을 기준으로 대학생이라는 집단과의 차이도 함께 비교하도록 하였다.

2. 연구내용과 설문항목의 개발

1) 주요 측정 변수와 설문 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사전조사를 통해서 실증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개발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구통계 변수로 나이, 성별, 주소 이외에 대학생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학년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섬 여행과 관련된 질문사항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섬 여행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섬 여행 경험 유/무, 섬 여행 횟수, 최근 여행한 지역, 최근 여행한 시기, 여행의 일정, 동반여행의 유무와 동반의 형태 등을 설문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단

답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들은 개방형 설문형태로 구성하였다.

정보탐색과 관련하여 정보탐색의 어려운 정도와 정보탐색을 통한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불만의 이유를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정보원천에 대한 설문항목으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주요한 원천으로 언급되고 있는 7개의 범주와 기타로 전체 8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먼저 매체로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매체를 포함하였고, 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탐색이나 획득의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은 크게 네이버나 야후, 구글 등과 같은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와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 등과 같은 인터넷 여행 전문사이트 블로그나 까페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영시청 관광 웹페이지나 완도군청 관광 웹페이지와 같은 해당지역 지역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로 4개를 포함하여 설문하도록 하였다.

정보의 형태는 동영상, 사진, 일반텍스트, 기타 등으로 선택항목을 구성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콘텐츠의 유형으로는 해당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목록 게시판이나 자료실, 사진 동영상을 제공하는 자료실, 여행 후기 게시판, 전문가들의 추천 여행지나 추천 목록, 질문과 답변 게시판, 그리고 기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여행이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정보 혹은 콘텐츠의 중요도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자연경관, 접근성, 먹거리, 비용, 편의시설, 사회문화, 관광활동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설문에 포함하였다.

<표 2> 설문항목 구성과 내용

변수구분	설문항목	척도	비고(세부내용 및 참고문헌)
인구통계	나이, 성별, 학년, 주소지역	개방형	일반설문항목으로 구성
	섬여행경험 유,무	선택형	여행 유무 선택
	섬여행횟수, 섬여행경험이 없는 이유	개방형	횟수 및 해당이유 기술
	최근 섬여행 지역, 최다 섬여행 지역, 일정, 동반형태	선택형	이덕순 · 박경희(2003), 정성애(2005), 오상훈 · 고계성(2006), 이재후(2007), 김준(2008), 조진상(2009)
섬여행 기본자료	정보탐색원천, 정보형태, 콘텐츠유형	선택형	김재석 · 한범수(2006), 이재후(2007), 조진상(2009)
정보 탐색관련	정보탐색난이도, 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정보탐색에 대한 만족도와 난이도의 수준을 응답하도록 함
	정보탐색 불만이유	개방형	불만이유를 기술
정보 중요도	자연경관, 접근성, 먹거리, 비용, 편의시설, 사회문화, 관광활동	리커트 5점척도	김나희 · 이애주(2002), 이덕순 · 박경희(2003), 오상훈 · 고계성(2006), 조진상(2009)

2) 연구가설

섬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연구에서는 먼저 인구통계적 자료와 섬 여행 특성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서 검정하도록 하였다. 먼저 가설 1-1과 1-2는 섬 여행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수립되었다. 응답자의 주소지역에 따라서 섬 여행 횟수나 여행지역에 대한 관련성의 검정과 계절에 따른 여행의 형태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이덕순·박경희, 2003; 김준, 2008; 이동신·김정숙 2008)에서 나타난 일반 섬 여행자들의 특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 표본집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이러한 가설이 수립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섬 여행의 대부분이 여름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대학생이라는 집단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여행의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이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성별에 따른 정보특성(정보원천, 정보형태, 콘텐츠 유형)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가설 2-1과 2-2가 수립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별에 대한 집단구분을 한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륙여행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설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가설 1-1. 주거지역과 섬 여행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 1-2. 계절에 따른 동반형태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2-1.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2-1a.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에 따른 차이는 없다.

가설 2-1b.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없다.

가설 2-2. 성별에 따라 정보특성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3-1.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3-1a.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의 차이는 없다.

가설 3-1b.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

가설 3-2.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3-2a.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의 차이는 없다.

가설 3-2b.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

가설 4-1.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 변수간의 중요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2. 섬 여행 횟수에 따라 정보 변수별 중요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3-1과 3-2는 일반적인 여행에서 고려되는 정보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김재석 · 한범수, 2006; 이재후, 2007; 조진상, 2009)에서 사용된 항목들이 섬 여행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정하기 수립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보특성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의 차원에서 난이도와 만족도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륙과 섬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여행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김나희 · 이애주, 2002; 이덕순 · 박경희, 2003; 오상훈 · 고계성, 2006; 조진상, 2009)에서 다루어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설 4-1이 수립되었다. 이 가설은 섬이라는 지역적 제약 하에서 변수들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이 가설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행의 횟수에 따라서 여행 정보의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4-2가 수립되었다. 연구에서 수립된 전체 가설은 기존의 여행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섬 여행이라는 맥락에서 검정하고 해당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III. 실증 분석 및 결과

1. 연구절차와 연구방법론

문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 사용될 개념과 변수들을 도출하고 실제 설문조사에 앞서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이 결합된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Semi – online 설문조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 응답과 관련된 모든 설문조사의 입력과 처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설문응답 대상을 전 산실습실에 모이도록 하여 조사자의 15분 정도의 사전 설명을 듣고 나서 설문조사 웹 페이지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성의 없는 응답을 줄일 수 있으며, 응답자들이 클릭만으로 쉽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고, 또한 조사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으며,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설문조사는 A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동안 40명씩 3회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배포된 전체 설문 응답자는 120부였으며, 이중에서 회의적인 답변을 하였거나 웹사이트의 오류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한 93부가 회수되어 77.5%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회수된 93부중에서 불성실하거나 설문응답이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을 제외한 87부가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증 통계분석 중에서 기본자료 분석과 코딩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실증 분석을 위해서 SPSS 18.0K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전체 설문에 대한 분석에 앞서 표본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적인 정보와 함께 특정 항목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설문대상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요약

나이	빈도	비율	성별	빈도	비율	학년	빈도	비율
20세 미만	2	2.3%	남자	66	75.9%	1학년	7	8.0%
30세 미만	82	94.3%	여자	21	24.1%	2학년	40	46.0%
40세 미만	3	3.4%	합계	87	100.0%	3학년	29	33.3%
합계	87	100.0%				4학년	11	12.6%
						합계	87	100.0%

먼저 표본집단의 나이와 관련된 기술통계값으로 평균은 23.60, 중위수는 23, 최빈값은 24, 표준편차는 3.01 최소값은 19, 최대값은 38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3.4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에서 섬이나 도서지역으로 여행이나 관광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94.3%로 나타나 대부분 1회 이상 여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집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67.9%가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경남지역과 다른 지역 거주자들 간에 섬 여행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검정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가 <표 4>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두 집단 간에 섬 여행 횟수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표본 집단에 대해서 섬이나 도서지역으로 여행 혹은 관광을 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20대 초, 중반의 대학생이 표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5회 이하가 전체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하는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집단의 평균 여행 횟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결과 평균은 4.17회, 중위수와 최빈값은 3, 분산은 3.35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횟수에 대한 t-검정

지역별 횟수 t-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횟수	등분산이 가정됨.	.304	80	.76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65	71.619	.716

수산해양관광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탐색 특성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대한 연구

최다 방문지역과 최근 방문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가장 많이 여행 혹은 관광을 한 지역으로는 경상남도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도가 36.6%를 차지하여 전체의 86.6%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방문지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도 최다방문지역과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응답자의 지역적 특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교통의 편리성과 같은 접근성이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지역과

<표 5> 응답표본의 주소지역과 최다여행 지역 간의 교차분석

응답표본의 주소지역 구분	여행지역 구분								전체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경남	빈도	2	19	0	0	0	2	8	1	32
	주소중%	6.3%	59.4%	.0%	.0%	.0%	6.3%	25.0%	3.1%	100.0%
	최다방문중%	100.0%	46.3%	.0%	.0%	.0%	40.0%	26.7%	100.0%	39.0%
경북	빈도	0	3	0	0	0	0	5	0	8
	주소중%	.0%	37.5%	.0%	.0%	.0%	.0%	62.5%	.0%	100.0%
	최다방문중%	.0%	7.3%	.0%	.0%	.0%	.0%	16.7%	.0%	9.8%
광주	빈도	0	0	0	1	0	0	0	0	1
	주소중%	.0%	.0%	.0%	100.0%	.0%	.0%	.0%	.0%	100.0%
	최다방문중%	.0%	.0%	.0%	100.0%	.0%	.0%	.0%	.0%	1.2%
대구	빈도	0	3	0	0	0	0	2	0	5
	주소중%	.0%	60.0%	.0%	.0%	.0%	.0%	40.0%	.0%	100.0%
	최다방문중%	.0%	7.3%	.0%	.0%	.0%	.0%	6.7%	.0%	6.1%
대전	빈도	0	0	0	0	0	0	1	0	1
	주소중%	.0%	.0%	.0%	.0%	.0%	.0%	100.0%	.0%	100.0%
	최다방문중%	.0%	.0%	.0%	.0%	.0%	.0%	3.3%	.0%	1.2%
부산	빈도	0	13	1	0	0	2	9	0	25
	주소중%	.0%	52.0%	4.0%	.0%	.0%	8.0%	36.0%	.0%	100.0%
	최다방문중%	.0%	31.7%	100.0%	.0%	.0%	40.0%	30.0%	.0%	30.5%
서울	빈도	0	2	0	0	1	0	0	0	3
	주소중%	.0%	66.7%	.0%	.0%	33.3%	.0%	.0%	.0%	100.0%
	최다방문중%	.0%	4.9%	.0%	.0%	100.0%	.0%	.0%	.0%	3.7%
울산	빈도	0	1	0	0	0	0	2	0	3
	주소중%	.0%	33.3%	.0%	.0%	.0%	.0%	66.7%	.0%	100.0%
	최다방문중%	.0%	2.4%	.0%	.0%	.0%	.0%	6.7%	.0%	3.7%
전남	빈도	0	0	0	0	0	1	2	0	3
	주소중%	.0%	.0%	.0%	.0%	.0%	33.3%	66.7%	.0%	100.0%
	최다방문중%	.0%	.0%	.0%	.0%	.0%	20.0%	6.7%	.0%	3.7%
전북	빈도	0	0	0	0	0	0	1	0	1
	주소중%	.0%	.0%	.0%	.0%	.0%	.0%	100.0%	.0%	100.0%
	최다방문중%	.0%	.0%	.0%	.0%	.0%	.0%	3.3%	.0%	1.2%
전체	빈도	2	41	1	1	1	5	30	1	82
	주소중%	2.4%	50.0%	1.2%	1.2%	1.2%	6.1%	36.6%	1.2%	100.0%
	최다방문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χ^2 값 : 131.514, 자유도: 63, 유의 확률 : 0.000

이동호

여행지역간의 관계에 대한 추론을 검정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소와 최다방문지역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5>에서 나타나 있듯이 경남지역 거주자들은 경남지역 섬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남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한 통계적 검정결과에서 보면, 유의수준 0.10과 0.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여행 혹은 관광을 한 연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올해라고 답을 했으며, 85.3%가 최근 2년 이내에 섬이나 도서지역으로 여행 혹은 관광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최근에 여행 혹은 관광을 한 월에 대한 응답을 보면, 특정 기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 8월, 5월, 7월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름철 기간인 7월과 8월이 일반적으로 섬이나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계층의 특성상 학기 초의 모꼬지(MT)나 단체여행이 3월에서 5월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 여행 월별 빈도 분석에 나타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계절구분과 동반형태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면 봄에는 주로 단체여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름에는 주로 친구나 연인끼리의 여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χ^2 검정을 한 결과에서도 보면, 유의확률값이 0.019로 산출되어 유의수준 0.10과 0.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이덕순·박경희, 2003; 정성애, 2005; 이재후 2007; 김준 2008; 조진상 2009)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비교할 때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의 여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섬 여행에 있어서 날씨와 기온의 영향이 높다는 일반 여행자 집단과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에 대한 설문의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7%의 학생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섬이라는 자연적, 지형적 특성상 숙박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에 기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표 6> 최근월별 섬 여행 빈도분석

최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결측	유효합
빈도	8	3	16	15	9	6	9	10	1	1	0	4	82	5	87
비율(%)	9.2	3.4	18.4	17.2	10.3	6.9	10.3	11.5	1.1	1.1	0	4.6	94.3	5.7	100
유효비율(%)	9.8	3.7	19.5	18.3	11	7.3	11	12.2	1.2	1.2	0	4.9	100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섬이나 도서지역으로 여행 혹은 관광을 누구와 같이 하였는가에 대한 동반형태별 빈도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6%가 친구나 연인과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MT나 수련회와 같은 단체여행이 29.3%, 가족이나 친척이 22.0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종택, 김혜정 2004; 이재후 2007; 최화춘 2007; 김준 2008; 이동신, 김정숙 2008; 조진상 2009)의 결과와 비교해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체여행의 비율보다 친구 혹은 연인과의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대학생 집단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에서 5명이 섬이나 도서지역으로 여행 혹은 관광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 응답자들에게 여행경험이 없는 이유를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통의 불편함과 같은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정보의 부족이 두 번째로 언급되었다.

여행경험이 없는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일반화를 하기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본 조사에 따르면 교통접근성과 정보의 부족이 대표적인 이유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행경험이 없는 5명의 응답자 중에서 4명이 향후 섬 여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명은 여전히 교통의 불편함과 위험성의 이유로 섬이나 도서지역으로의 여행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계절구분과 동반형태의 교차분석

항목		동반				전체
		가족/친척	단체	친구/연인	혼자	
봄 (3~5월)	빈도	6	20	14	0	40
	계절구분%	15.0%	50.0%	35.0%	.0%	100.0%
	동반%	33.3%	83.3%	35.9%	.0%	48.8%
여름 (6~8월)	빈도	7	3	14	1	25
	계절구분%	28.0%	12.0%	56.0%	4.0%	100.0%
	동반%	38.9%	12.5%	35.9%	100.0%	30.5%
가을 (9~11월)	빈도	0	0	2	0	2
	계절구분%	.0%	.0%	100.0%	.0%	100.0%
	동반%	.0%	.0%	5.1%	.0%	2.4%
겨울 (12~2월)	빈도	5	1	9	0	15
	계절구분%	33.3%	6.7%	60.0%	.0%	100.0%
	동반%	27.8%	4.2%	23.1%	.0%	18.3%
전체	빈도	18	24	39	1	82
	계절구분%	22.0%	29.3%	47.6%	1.2%	100.0%
	동반%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특성 분석

앞서 섬 여행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서 개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에서는 섬 여행과 관련하여 정보특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1) 정보 탐색 난이도와 만족도

섬 여행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정도와 탐색된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정보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응답자들에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쉽다’와 ‘매우 쉽다’의 비율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통이다’ 까지를 포함하면 89.4%로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이나 정보수집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정보탐색의 어려움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한다’ 이상의 비율이 45.9%였으며,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중립적인 반응인 ‘보통이다’ 가 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비율은 낮지만 ‘보통이다’ 이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구에서는 불만이유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복수응답으로 228개의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불만 요인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성 정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정보, 단편적이고 부실한 내용, 정확하지 못한 여행·관광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섬 여행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광고나 홍보성 정보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 탐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 섬 여행을 위한 정보의 탐색이 용이한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t

<표 8> 정보 탐색의 어려움과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매우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쉽다	매우쉽다
정보탐색의 어려움	빈도	0	9	29	37	10
	유효비율	0.0%	10.3%	33.3%	42.5%	11.5%
구분		상당히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상당히만족하다
정보탐색의 만족도	빈도	0	7	39	34	5
	유효비율	0.0%	8.0%	44.8%	39.1%	5.7%

<표 9> 성별 정보탐색 여려움과 만족도에 대한 t-검정

검정항목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유의확률
정보탐색의 어려움	등분산 가정됨	.198	.658	1.557	.123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1.505	.142
정보탐색의 만족도	등분산 가정됨	.376	.541	.294	.770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309	.759

- 검정을 한 결과를 <표 9>에서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에 따른 정보 탐색을 위한 능력이나 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석한 실증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탐색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서 분석한 정보 특성의 결과와 함께 판단한다면 대학생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정보검색이나 선호정보의 특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보원천, 형태, 콘텐츠 유형별 실증분석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 탐색에 있어서 정보원천, 형태, 콘텐츠 유형에 대한 실증분석 빈도분석을 한 결과가 <표 10>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은 포털사이트나 검색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주요 정보원천으로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와 까페나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 다음으로 응답했다. 분석된 표에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검색과 정보원천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3.5%로 나타나 기존세대와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여행정보 탐색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중에서도 전문적인 관광 웹사이트와 섬 도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현재 상당한 수의 지방

<표 10> 정보원천, 형태, 콘텐츠 유형 별 빈도분석

정보원천	빈도	비율	정보형태	빈도	비율	콘텐츠유형	빈도	비율
방송매체	1	1.1%	동영상	8	9.1%	사이트추천 목록	10	11.5%
다른사람들	20	23.0%	사진	73	83.9%	사진, 동영상 자료실	13	14.9%
출판매체	1	1.1%	일반텍스트	5	5.7%	여행후기 게시판	57	65.5%
검색,포털사이트	47	54.0%	기타	1	1.1%	전문가추천 목록	2	2.3%
여행,관광전문사이트	4	4.6%	합계	87	100.0%	질문과답변 게시판	4	4.6%
인터넷 커뮤니티	11	12.6%				기타	1	1.1%
지자체 사이트	2	2.3%				합계	87	100.0%
기타	1	1.1%						
합계	87	100.0%						

이동호

자치단체들이 섬 여행이나 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나 독립된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관광공사와 같은 공식적인 섬 여행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보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보의 형태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비율인 83.9%가 사진정보를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영상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섬 여행 정보는 약 10% 정도가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콘텐츠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의 절반이 넘는 65.5%가 여행/관광 후기 게시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진, 동영상이 있는 자료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와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특정 사이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특정인의 의견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들이 섬이나 도서 여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케팅에서 말하는 구전효과가 인터넷 쇼핑만이 아니라 여행 혹은 관광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가설 2-2의 검정을 위해서 섬 여행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정보원천, 정보형태, 콘텐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10과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정보특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정보원천별 정보탐색 만족도와 난이도에 대한 차이분석

정보원천별 분산분석(전체)		제곱합	평균제곱	유의확률
정보탐색의 어려움	집단-간(조합됨)	4.579	1.145	0.161
	집단-내	54.315	0.679	
정보탐색의 만족도	집단-간(조합됨)	4.175	1.044	0.095
	집단-내	40.719	0.509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원천에 따라서 정보탐색의 어려움과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한 결과인 <표 11>에서 보면, 정보탐색 만족도의 경우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이도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의 정보원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보원천을 인터넷과 비인터넷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만족도와 난이도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표 12>에 나타나 있듯이 유의수준 0.10에서 정보탐색의 만족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탐색의 어려

<표 12> 정보원천별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에 대한 t-검정

정보원천별(인터넷, 비인터넷)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유의확률
정보탐색의 어려움	등분산 가정됨	7.530	0.007	0.857	0.394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0.716	0.480
정보탐색의 만족도	등분산 가정됨	0.498	0.482	1.792	0.077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1.746	0.090

음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정보원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25로 비인터넷 값인 3.19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콘텐츠별 만족도와 나이도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 있는데, 정보탐색 만족도의 경우 유의수준 0.10(신뢰수준 9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콘텐츠별 정보탐색 만족도와 나이도에 대한 분산분석

콘텐츠별 만족도, 나이도 분산분석		제곱합	평균제곱	유의확률
정보탐색의 어려움	집단-간(조합됨)	2.382	.595	.502
	집단-내	56.512	.706	
정보탐색의 만족도	집단-간(조합됨)	4.314	1.079	.085
	집단-내	40.580	.507	

사후분석 결과에서 보면 전문가추천 목록과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비해서 다른 콘텐츠들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섬 여행에 있어서 표본 집단이 사이트의 운영자나 소수전문가에 의해서 생성되는 콘텐츠에 비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보다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콘텐츠별 섬 여행 횟수에 대한 분산분석

콘텐츠별 횟수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유의확률
집단-간(조합됨)	99.761	4	24.940	.060
집단-내	799.671	76	10.522	
합계	899.432	80		

선호하는 콘텐츠별로 섬 여행의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표 14>에서 보면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다시 Duncan,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문가의 추천이나 질문과 응답게시판을 선호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섬 여행 횟수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섬 여행의

이동호

횟수가 적은 사용자들의 경우 다양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보다 선호하고, 섬 여행의 횟수가 많은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생성되는 콘텐츠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섬 여행에 주요 결정 변수로 사용된 자연경관 등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한 결과가 <표 15>에 나타나 있다. 결정 변수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결과에서도 당 표본 집단의 경우 사회문화와 관광활동에 대한 정보·콘텐츠보다는 자연경관이나 접근성 등의 다른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패키지형태의 관광이 아닌 자율적 관광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15> 정보 변수별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

변수	자연경관	접근성	먹거리	비용	편의시설	사회문화	관광활동
평균	4.317	4.073	4.232	4.183	4.341	3.683	3.646
분산	0.836	1.155	0.847	1.016	0.746	0.985	1.343
변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비	유의확률	F기각치
	집단-간	41.240	6	6.873	6.946	0.000	2.115
	집단-내	561.110	567	0.990			
	합계	602.350	573				

특히 해당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자연경관, 먹거리,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사회문화(문화유산, 유적 등)나 관광활동(지역축제,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 여행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지역축제와 같은 정보들은 오히려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보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표 16>은 섬 여행 경험의 정도인 섬 여행 횟수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의수준 0.10에서는 접근성과 비용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행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비용과 접근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 경험이 많은 집단일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치나 교통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지식수준이 경험이 적은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이 나

<표 16> 섬 여행 횟수에 따른 중요변수별 분산분석

섬여행대비 중요변수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유의확률
자연경관	집단-간(조합됨)	2.325	3	.775	.438
	집단-내	62.662	74	.847	
접근성	집단-간(조합됨)	6.691	3	2.230	.096
	집단-내	75.270	74	1.017	
먹거리	집단-간(조합됨)	1.568	3	.523	.628
	집단-내	66.278	74	.896	
비용	집단-간(조합됨)	9.420	3	3.140	.026
	집단-내	71.413	74	.965	
편의시설	집단-간(조합됨)	4.570	3	1.523	.113
	집단-내	54.763	74	.740	
사회문화	집단-간(조합됨)	3.629	3	1.210	.294
	집단-내	70.986	74	.959	
관광활동	집단-간(조합됨)	5.626	3	1.875	.242
	집단-내	97.362	74	1.316	

타낼 수 있다. 먼저 주거지역 혹은 주소지와 섬 여행지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소지 근처의 섬 지역을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분석결과
가설 1-1. 주거지역과 섬 여행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기각
가설 1-2. 계절에 따른 동반형태의 차이는 없다.	기각
가설 2-1.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채택
가설 2-1a.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에 따른 차이는 없다.	채택
가설 2-1b. 성별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없다.	채택
가설 2-2. 성별에 따라 정보특성에 대한 차이는 없다.	채택
가설 3-1.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기각
가설 3-1a.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의 차이는 없다.	기각
가설 3-1b. 정보원천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	기각
가설 3-2.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과 만족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부분기각
가설 3-2a.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어려움의 차이는 없다.	채택
가설 3-2b. 콘텐츠에 따라 정보탐색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	기각
가설 4-1.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 변수간의 중요도는 차이가 없다.	기각
가설 4-2. 섬 여행 횟수에 따라 정보 변수별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	접근성, 비용요인 기각

일반적인 섬 여행자들과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된 가설 1-2의 검정에서는 계절에 따른 여행의 형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봄철에는 단체 여행을 여름철에는 친구나 연인끼리의

이 동 호

여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여행자 집단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탐색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수립한 가설의 검정에서는 정보탐색 능력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집단에 있어서 섬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원천에 따른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집단에서 콘텐츠별 정보탐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 여행과 관련된 정보변수들 간에 있어서도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4-2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비용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여행의 횟수에 따라서 중요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섬 여행과 관련된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섬 여행에 있어서 선호되는 정보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섬 여행 정보의 탐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섬 여행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설 검정을 통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과 1-2의 분석결과에서는 섬 여행에 있어서 거주지역과 근접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주로 개인 혹은 소규모의 형태로 봄에는 단체여행의 형태로 특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섬 여행의 대상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지역에 따른 접근성과 계절적인 특성이 일반 섬 여행자들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절적인 수요를 고려한 세분화된 집단을 위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설 3-1의 분석결과를 볼 때, 섬 여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아닌 인터넷 기반의 정보원천이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여행 가이드나 관광 홍보책자와 같은 매체보다 인터넷 기반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상당한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관광정보 웹페이지나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집단에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지만, 섬 여행에 있어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섬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부족한 것을 그 이유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원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학생 집단이 유용하게 접근하는 주요 정보원천에 대해서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호되는 정보원천에 대한 집중적인 관련정보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호하는 정보의 특성에서 대부분 사진 정보를 선호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행 후기나 개인 블로그의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커뮤니티 중심의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리자 혹은 운영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관리방식 보다 사용자간의 정보생성과 공유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관련 특성을 섬 여행 경험에 따라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섬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집단인 경우에는 구전효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 여행의 경험이 많은 집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경험들로 충분한 정보가 획득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여행 전문가, 사이트 운영자)의 추천과 같은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섬 여행과 관련한 상품이나 해당 지역의 관광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섬 여행 초보자들에게는 다양한 여행 후기나 사회적네트워크(SNS)를 통한 마케팅이 효과적이며, 이미 상당한 섬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의 지식공유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섬 여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있어서도 가설 4-1과 4-2의 검정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섬 여행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 여행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 여행과 관련된 경험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집단을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성과 비용에 대한 긍정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섬 여행이라는 특정의 주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계층에 국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덕순·박경희, 2003; 김재석·한범수, 2006; 이재후, 2007; 김준 2008)과 비교해 본다면 시장세분화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분화된 시장을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나 관련 조직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이 섬 관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의 원천이나 유형 그리고 콘텐츠와 같은 측면에서 주요 특성의 분석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

이동호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의 집단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기에 일반화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용, 교통, 숙박시설 정보와 같은 섬 여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생 중심의 섬 여행 특성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시장전략과 같은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부산과 경남 지역 이외의 지역 표본이 상당수 포함된 대학생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여행자들과의 비교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나희 · 이애주, “관광정보 웹사이트 콘텐츠 특성의 평가와 만족에 관한 연구 – 전국 5대 광역 시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2, pp.7 – 34.
- 김민철 · 장희정, “도서의 관광콘텐츠 유형에 따른 관광매력요인”, *관광 · 레저연구*, 제20권, 제4호, 2008, pp. 123~137.
- 김재석 · 한범수, “관광수요자의 정보탐색특성을 이용한 관광웹사이트 품질평가”, *e – 비즈니스 연구*, 제7권 제3호, 2006, pp. 27 – 49.
- 김종택 · 김혜정, “관광정보 웹사이트 정보서비스의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pp.319 – 338.
- 김준, “섬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 전남 도서연안지역을 중심으로 –”, *도서문화*, 제32집, 2008, pp.3 – 40
- 문형남, “웹사이트 평가 모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2001, pp.31 – 56
- 박경호, “지방자치단체 관광정보 웹사이트 정보서비스에 대한 영향관계 분석 – 이용자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중요도를 중심으로 –”, *관광정책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6, pp.79 – 98
- 성영신 · 정수정 · 장세욱, “네이션은 웹사이트를 평가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한국심리학 회지 : 소비자 · 광고*, 제2권, 제2호, 2001, pp.101 – 123.
- 야은숙, “효과적인 관광웹사이트의 구성요소 : 웹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국 관광웹사이트 조사”, *관광정책학연구*, 제7권, 제1호, 2001, pp.135 – 159.
- 양승필, “제주지역 일반여행사의 웹사이트 운영체계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8권, 제1호, 2006, pp.163 – 181.
- 오상훈 · 고계성, “섬 관광목적지 매력성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6, pp. 201~216
- 오성동 · 박노경, “도서(섬)관광 인터넷안내 평가분석 : 신안군 중심”, *한국도서연구*, 제15권, 제1호, 2003, pp.65 – 78.
- 우찬복, “웹사이트평가지표에 기초한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2003, pp.193 – 209.
- 이덕순 · 박경희, “도서관광지 방문객의 관광형태에 관한 사례연구 – 거문도를 중심으로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7권 4호, 2003, pp.17 – 24.
- 이동신 · 김정숙, “남도관광의 중요요소 결정요인”, *한국도서연구*, 제20권, 제1호, 2008, pp.45 – 61.
- 이재후, “국내 섬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제23호, 2007, pp.115 – 134.
- 정성애, “경기도방문 국민여행자의 프로파일”, *경기 국제관광 학술대회*, 2005, pp. 55 – 64.
- 조진상,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 완도군 청산도 방문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4호, 2009, pp.151 – 176.
- 최영기, “대학생의 인터넷여행상품 구매특성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6권, 제2호, 2002, pp.227 – 246.

이동호

- 최화춘, “IPA 기법을 이용한 웹사이트 관광정보 평가”, 관광연구저널, 제21권, 제3호, 2007, pp.303 – 316
- 최혜경 · 최지연, “도시관광자원의 관광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 청계천 대상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 관광정책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7, pp.41 – 61.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6
- 한웅희 · 이유재 · 김재일 · 박기완, “사전지식 및 관여도가 소비자의 신념불일치에 미치는 효과”, 마케팅 연구, March, 2009, pp.51 – 76.
- Brucks, M.,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June), 1985, pp.1 – 16.

A Study on Information Exploration Characteristic and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Island Tourism Web Site

Dong-Ho L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exploration characteristic and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island tourism web site. The survey items are developed based on the related studies and also implemented particular way so – called ‘semi – online’ that including both web based material and offline tutorial.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ve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exploration on island tourism of university students. The second is examining the peculiar properties of tourism information that exposed one’s individual importance evalu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most of the students have no difficulty in using the internet and exploring the island tourism information.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sing and exploring the interne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most popular type of island tourism information is picture type. Personal blog or user created contents(UCC) that containing the other’s experience of island tourism is mostly wanted contents.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of contents within the students. The community based information which including UCC, blog, and other community user’s posting is evaluated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for relatively less experienced students. On the other hand more experienced students have a preference on expertise information which created by tourism experts.

The difference within the determinant factors that affecting island tourism also significant. With analysis of variance(ANOVA) on determinant factors, the tourism activity and social/culture resource are less important than others(eg. natural environment, accommodation and so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practically used for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s effective tourism web site and enhancing the current island tourism operation. And also it gives a advantage to facilitate the island tourism for young generations.

이동호

Key words : Island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 Island Tourism Web Site, Island Tourism Information, Importance Evaluation of Island Tourism, Contents Preference